

# 2015년 세계 주요 도시 시장

## 신년사 요약

본 자료는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을 바탕으로 서울시장과 뉴욕시장의 연설을 추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.



**뉴욕시,**  
**빌 드 블라시오**  
**(Bill de Blasio) 시장**

■ 2015년 시정의 목표는 불평등을 없애 모두를 위한 도시 뉴욕을 만드는 것

- 과거 뉴욕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였지만 오늘날 이러한 동력을 잃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
- 2014년부터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
- 50,000명의 아이에게 유치원 종일반 수업 제공, 중학생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
- 18,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 제공 확대
- 뉴욕 불법 체류자를 위한 ID NYC 제공
- 진취적인 가치를 유지하며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위한 예산 배정 및 정책시행
- 6억 9천만 달러를 소수자나 여성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투자
- 뉴욕시민을 직업, 건강센터, 사회안전 네트워크와 연결
-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테크 탠트 파이프라인(Tech Talent Pipeline), 새로운 경제 허브 개발, 건강진료소 개설
- 128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94개의 노후 된 학교 수리 및 개선
- 그 외 경찰관의 정지 신체수색권 과용 방지 및 범죄율 감소, 보행자와 자전거, 자동차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조성 등 시행
- 2015년 시행 예정인 주거 정책
- 2014년에 이어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본 2,000가구 이상에 주거공간 제공
- 시민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용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할 때 구매할 수 있는 가용 주택을 만들도록 하는 새로운 법 제정 등 가용주택 건설 및 기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
- 전 도심에서 운영되는 B.R.T 서비스를 20개 노선으로 확장하고 2017년까지 페리 시스템 시행하여 뉴욕 시민이 빠르고 쉽게 출, 퇴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소외된 시민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시행 예정
- 재향군인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시행
- 뉴욕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50대 이상의 뉴욕시민을 위해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
- 예술가를 위한 주택 1,500개 공급과 문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500개의 직장 제공
- 불평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계획.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13달러로 2019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할 예정



**런던市,**  
**보리스 존슨**  
**(Boris Johnson) 시장**

■ 2015년 시정의 목표는 **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, 새로운 도시문화 허브 건설, 최저 임금제 시행**

- 지난해 교통,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한해
  - 교통 분야 : 역대 최고의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기록,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수 증가
  - 주택 분야 : 가장 많은 수의 저렴한 주택 건설
  - 기타 분야 : 올림픽 공원을 성공적으로 재개장, 범죄율 감소, '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'로 선정됨
- 2015년 주요 추진 사업
  - 지하철 노선(Northern Line) 연장 예정, 주말에 한해 지하철 일부 노선 24시간 운행 추진
  -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보행자 전용 다리(London Garden Bridge)사업 추진
  - 런던 올림픽 부지에 대학, 박물관, 극장을 포함한 문화 허브 올림피코폴리스(Olympicopolis) 건설
  - 런던의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자전거 전용도로(Cycle Super Highway) 조성
  - 런던의 최저임금(London Living Wage) 시행 기업 확대



**뮌헨市,**  
**디터 라이터**  
**(Dieter Reiter) 시장**

■ 2015년 시정의 주요 목표는 **다양한 도시 인프라 확충**

-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'제6기 뮌헨 주택(2011~2016) 프로그램'에 따른 사업 시행 예정
  - 시청 각 부서를 망라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간 8,000

호의 주택 추가 확보

- 주택건설 조합을 통한 주거공간 신축
- 2006년 수립된 '교통개발계획'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공법과 기술 수용
  -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한 남북 순환 자전거도로 설치, 자전거 대여 시스템 'MVG Rad'의 도입과 이를 통한 공용 자전거 이용사업 추진
  -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가능 지역 확대(뮌헨 전역) 및 어플리케이션 'MVG Fahrinfo Munchen'를 통한 승차권 구매 추진
- 문화사업에 1억 8,400만 유로(약 2,267억 원) 투자
  - 시립 '국가사회주의(Nazi)' 문서보관소 운영
  - 미래지향적 문화산업 촉진
- 사회 정책 분야
  - 뮌헨 패스(Munchen-Pass)<sup>1</sup> 신청 가능자를 주거보조금, 육아보조금의 수혜자까지 확대
  - 청소년과 어린이 주거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,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 정책 로드맵 마련
  - 이민자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마련, 모국어와 고유의 문화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
  - '빈곤 퇴치를 위한 유럽 원탁회' 참여를 통해 보편적인 인류 복지에 이바지
- 2025년까지 뮌헨 전 지역이 사용 가능한 재생 에너지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
  - 뮌헨 도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 곳의 풍력발전소 운영을 통해 약 35억kWh의 전력 생산
  -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장거리 원격 난방 시스템 운용의 기반 공사 추진
- 일자리 창출
  - 관청 내 직업교육생의 숫자 증가(기존 270명→ 350명)를 통해 이민자 가정 자녀를 위한 배려 확대
  - UN의 장애인 인권협약에 따라 19명의 장애인 추가 채용

1 저소득층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



**바르셀로나市,  
샤비에르 트리아스  
(Xavier Trias) 시장**

- 2015년 시정의 주요 목표는 모두가 도시에서 동등한 미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 시행
- 일자리 창출
  - 취업 알선 프로그램, 지역에서 일하기, 일자리를 창출하는 바르셀로나, 고용약속<sup>2</sup>, 장애인 취업알선 네트워크, 청년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진행
- 경제 부활
  - 경제위기 시대에 잘 견디어 준 관광업 육성과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 발전
  - 이를 위해 불법 숙박업 단속, 관광업 분산과 모바일 기술, 스마트 도시, 전기 자동차, 청정에너지, 생물 의학 등 미래 정책 분야 성장 정책 시행
- 약자의 기본적 수요 충족 보장
  - 시민단체와의 협정 및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
  - 원격진료클리닉, 홈 케어, 식량지원, 빈곤층 연료지원 시행
  - 사회적 취약 그룹에의 관심 증대를 위해 사회혁신대책 (음식 유통, 연대카드, 노숙자 지원, 불법 거주지 관리) 추진
- 도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
  - 과거의 주요 성과: 도시 범죄자 집단 분류 연구를 통해 범죄율 10% 감소, 지하철 범죄율은 30% 감소
  - 대중교통 부문에 1억 1,600만 유로(약 1,430억 원)를 투자하여 대중교통 요금 동결, 통합 승차권(T-10) 요금 감소
  - 기존 블록구역을 통합하는 슈퍼블록 정책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도입
  - 도시 녹지와 에너지 자급자족 관련 정책 시행



**베를린市,  
미하엘 뮐러  
(Michael Müller) 시장**

- 2015년 시정의 주요 목표는 이웃과의 연대 속에 발전하는 도시
- 시와 각 구에 약 5천 명의 피난민을 위한 거처 마련 예정
-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20만 명의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
- 저렴한 주택 확대 마련과 오래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시행
- 2024년의 하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
  - 시민이 참여하고 기존 도시시설을 이용한 소박한 대회로 개최하여 진정한 개혁-올림픽(Reform-Olympiad) 수행
  - ‘올림픽-시민의견조사법’ 시행을 통해 올림픽 시민참여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
  - 스포츠시설의 확장과 재개발에 중점적 투자 예정
- 공공복지가 강화된 도시를 위한 노력
  - 편모 편부를 위한 총체적 지원계획 마련, 보육시설 확충(1만 명 추가 목표)
  -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통합 학교 추가, 학생 직업사무소 설립
  - 이주자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재정지원 확대, 가정폭력 방지 지원시스템 개편
  - 요양사와 보육교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
  -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시 정책 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유도
  - 시 회의를 각 구에서 한 번씩 개최하여 현장에 나가는 시 정부 수립

2 40세 이상이거나 소외의 위험에 놓인 실직자 1,340명의 고용 안정화 약속



**베이징시,  
왕안순  
(王安順 Wang Anshun) 시장**

- 2015년 시정의 주요 목표는 장진지의 협동발전, 개혁 개방 심화, '도시병' 해결
- 장진지(京津冀, 베이징, 톈진, 허베이의 약칭)의 협동 발전 추진
  - 교육, 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 기능을 외부로 이동시켜 활성화함으로써 수도의 비핵심기능 분야의 발전 방향 모색
  - 교통 일원화, 생태 환경 보호, 산업 연계 협력 시행에 관한 연도별 업무 항목 제정
  - 통일적인 생태환경보호 계획, 표준, 관리감독, 집행 체계 건립을 추진하여 협동 발전을 위한 체제 구축
  - 장진지 세 지역의 기업재산권, 지식재산권, 산림소유권 등 시장화 전환제도 수립과 지역을 넘나드는 기술, 인재 이동, 지역 시장 일원화 과정 가속화
- '도시병'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시행
  - 인구 규모 조정 방안의 전면적인 실시를 통한 인구 규모 억제, 거주중 제도를 통한 포인트 적립, 호구정책 연구 제정
  -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예방조례 실시, 석탄, 석유 사용을 줄이고 먼지를 해소 하는 조치 전면 시행, 오래된 자동차 20만 대 폐차, 시멘트 생산량 감소, 녹색 건설 발전 등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 노력 시행
  - 교통체증 문제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체증 해소 조치 제정, 4개의 지하철 노선 건설, 주차관리 시범지역 조성, 대중교통 전용도로 일부 실시, 미세순환 대중교통 증편, 공공자전거 증가 추진
- 개혁개방을 심화하여 각 영역의 개혁을 협동 추진
  - 3차 산업의 내부 구조를 최적화하고, 본부경제를 발전 시키며, 혁신 유도, 기술 밀집, 첨단 가치의 경제 구조 형성으로 '현대화된' 경제 구조 구축
  - 기본조장, 혁신 기제, 시민의 생활 수준 제고로 민생 보장과 개선



**샌프란시스코시,  
에드윈 리  
(Edwin M. Lee) 시장**

- 2015년 시정의 주요 목표는 '지불 가능성 지향 (Affordability Directives)'. 이에 맞추어 주택, 교육, 교통, 여성 권리,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진행
- 저소득층, 중산층 근로 가정에 적합한 주택 공급
  - 중산층의 주택 소유를 위해 주택담보 장기융자 보조 인력 및 정책 강화,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융자시스템 가동 예정
  - 세입자 보호를 위해 '앨리스법(Alice Act)<sup>3</sup>' 개정
  - 저소득층 주택 채권 발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충
  -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민관이 연계하여 비영리주택 건설
-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과 근로 기회 확대
  - 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유치원 교육 시행
  - 4세~8학년까지의 여름철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전체 학생에게 확대하여 제공
- 대중교통 이용 확대
  - 고성능 경전차(LRV, light rail vehicles) 40대 추가 공급
  -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 대중교통 이용 확대
  - 5,000억 원의 교통 기금을 확보하여 최소 20km 이상의 사고 다발 위험도로에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계획
- 여성을 위한 평등한 고용여건 확보
  - 여성권리회담 개최
  - 가정과 직장 내 폭력 방지를 위한 'NO MORE/NADA MAS' 캠페인 지속
- 빈곤 퇴치를 위한 비영리 지원 강화
  -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'Project 500'을 시행 하여 도시 내 극빈층 가정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
  - 연방정부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개보수하여 실용성 증대
  - 노숙자를 위한 숙박과 사회 재적응 센터 제공

3 건물주가 더이상 임대업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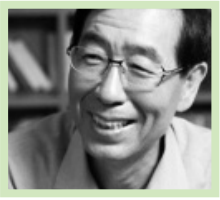
**시애틀市,**  
**에드워드 머레이**  
**(Edward B. Murray) 시장**

- 2015년 시정의 주요 목표는 행정서비스 증진을 통한 형평성, 교통,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도시발전과 선진화
- 지역별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증가하는 인구에 대처하고,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 정부를 재구성할 계획
- 각 주거지역의 새로운 밀도 계획 수립, 지속 가능한 주거지 유지 관리를 위한 지역별 투자 계획 수립
- 2035년을 내다보는 도시의 미래상 구상, 기존의 도시 종합계획(도시종합계획 업데이트, 교통기금 재편,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추가 계획 및 건설)수정
- 시민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서비스 제공
- 우버(Uber), 리프트(Lyft)와 함께 자동차 공유 프로그램 ‘Car2Go’ 시스템 도입 예정
- 교통계획의 통합화 진행
- ‘Sound Transit 3’이라는 신개념의 경전철 도입으로 교통과 일자리 창출 과제 해결
- 소득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주택문제의 계층화 해결
- 주거 유지관리비용 할인제도를 시행, 2018년까지 확대 예정
- 주거비 교통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계획 시행예정
- 교육 부문의 격차 해소
- 소득, 인종 간의 차이 감소를 위해 흑인과 남미계열 학생이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
- 소규모 창업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 방향 모색
- 일반 계획부터 상세한 예산까지의 정보공개를 확대 시행하여 도시정부의 행정성과 증대
- 경찰력의 확보와 배치를 통해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시행



**파리市,**  
**안 이달고**  
**(Anne Hidalgo) 시장**

- 2015년 시정의 주요 4대 과제는 경제 부양, 생태적 전환, 사회연대 강화, 주민 민주주의 강화
- 경기부양을 위한 광범위한 투자 계획 마련
- 3만 개의 일자리 창출,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단일 창구 개설, 기업가들의 지역조사와 공공분야 접근 편의 제공, ‘푸드 트럭’ 유치를 위한 부지 40곳 마련
- 세계 대도시와의 긴밀한 연계 아래 생태적 전환을 위한 노력 시행
- 디젤 자동차를 포기한 파리주민에게 패스 나비고(파리시 대중교통 이용 카드) 1년 정기권 제공,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무료 주차 혜택 제공
- 파리의 모든 업무용 차에서 디젤차 금지
- 공기청정 사업인 ‘파리는 숨 쉰다(Paris Respire)’ 사업 지역 확대, 파리 남부와 북부를 잇는 자전거 도로, 숲을 잇는 도로, 파리 주변의 우회도로 개통
- ‘우리 집 근처의 녹지’로 선정된 200개 장소에 소규모 녹지 조성
- 사회연대와 복지 강화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
- ‘파리를 위한 재단’을 설립하여 파리 주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주택 1만 호 마련
- 그랑 파리(Grand Paris)로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공동행정 협력체 구성, 수도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
- 주민 민주주의 강화
- 시민의 주민사업 제안 플랫폼 ‘시장님,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’ 개설
- 시민단체들이 시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‘시민 가판대’, ‘시민 자유 발언대’ 설치
- 도시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파리-뉴욕 간 공동 토론 개최
- ‘도시의 외교관들’ 캠페인으로 전 지구적 이슈의 대안을 각 현장의 활동가로부터 찾고 도시 간에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파리 시민의 국제교류 참여 촉진



**서울시,**  
**박원순**  
**(Park Wonsoon) 시장**

■ 2015년 시정의 목표는 '시민이 시장'이라는 시정원칙 아래 '함께 서울'로 나아가는 것

- 민생을 먼저 챙기는 '이용후생', '선우후락'의 시정 시행
  - 2014년, 채무 7조 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 호 건설, 7,000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, 공공의료 혜택 확대, '마을 공동체 돌봄 지원 사업' 시행
  - 시민 생활의 변화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동시에 질적 완성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 조성
- 창조경제, 특화산업의 활성화로 서울 경제지도의 변화와 세계 창조경제의 수도 서울 확립
  - R&D, 관광, MICE, 레저스포츠 산업, 패션의류산업, 바이오 의료산업, ICT, 교육서비스 산업 등 경쟁력 있는 새로운 창조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
  - 양재, 창동·상계, 상암 DMC, 마곡, G밸리(구로·금천), 신흥합(신촌·홍대·합정), 개포동, 홍릉 일대, 동대문을 서울형 창조경제의 거점이자 지식산업 중심으로 발전
  -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인 특화지구를 지원하고, 전통시장, 동네기업, 상점가, 전문상가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발전 전략 마련
- 국내 강소기업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 생태계 다원화
  - 챌린지 1,000 프로젝트, 창업센터 운영, 창업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 생태계 조성
  - 뉴딜 일자리, 공공근로, 지역사회 일자리 등의 공공 일자리 확보,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한 근로자의 능력 배양
  - 고용특구 지정과 일자리재단 설치로 제도적 기반 마련
  -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, 도시철도 건설, 한강 개발 등 적극적인 도시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고용 창출
  - 협동조합, 사회적 기업,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육성
  - 국공립 어린이집, 요양시설 확충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

- 민생안정과 복지 강화, 여성과 노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도시 건설
  -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를 통해 재건축, 재개발사업을 도시 재생사업으로 연결
  - 금융복지상담과 공공의료비 지원,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, 희망 집수리 등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
  -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, 서울형 전·월세제도로 주거안정 확보
  - 생활임금제 도입 영역 확장과 '참여형 노사관계 모델'의 시범 시행
  - 여성일자리 10만 개 창출, 국·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여성이 행복한 서울 조성



**도쿄도,**  
**마스조에 요이치**  
**(舩添要一, Masuzoe Yoichi)**  
**도지사**

■ 2015년 시정의 목표는 앞으로 5년을 도쿄와 일본을 부활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

- 지난해 보좌관 제도의 도입, 정책 기획국의 창설을 통해 소통이 악화 된 조직 풍토 개선
- 강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소통 강조
  - 나쁜 소식일수록 신속히 알려 도지사와의 소통이 함께 해결하는 방안 추진
- 도쿄도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추진할 것 강조
  - 치안, 방재, 복지, 의료, 교육 등 지방자치의 일뿐만 아니라 넓은 시야로 다른 도시와 함께 업무 진행
  - 전력의 공급원인 후쿠시마, 니가타지역, 식량공급지역 등 도쿄와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방법 강구
  - 국제적으로는 '국가 전략 투구'라는 수단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전략을 시행
- 2020 올림픽, 장애인 올림픽 수행을 위해 도쿄도 전 직원이 모두 힘을 합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 당부 